

제주도시 주거문화 연구사의 검토와 전망

김 태 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주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 그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주거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는 건축의 기원에 있어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시적 혹은 토착적 형태로서의 기본적인 건축물이다. 그것들은 인간으로서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사물을 행하는 특수한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것이고, 또한 모든 가능한 대안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환경은 하나의 특정한 대중문화(건조환경 양식=스타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의복이나 음식과 같은 대중문화(생활양식=스타일)와도 같은 것이다.

어떠한 양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가치관, 표준, 기준 등이 요구되는데, 그것들은 도식에 의하여 구현된다. 결국 인조환경의 양식은 이와 같은 도식과 그것들이 가지는 질서(秩序, 공간적 질서)가 반영됨으로써 부호화 되어진 문화형태(양식=스타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 주생활 중 가장 큰 특징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분되는 공간분할에 따른 생활경제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바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쌓은 돌담으로 인해 안과 밖이 폐쇄적이지만 돌담의 안, 즉 생활공간은 안거리와 밖거리가 대립적인 배치 관계를 형성하면서 마당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공간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이 특징이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의 우영(밭)이 있어서 야채 등의 재배를 통해 최소한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의 전통건축이 사라져 가면서 주생활 그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가와 와가를 대신하여 철근콘크리트조의 고층아파트가 자리 매김하고 있고 울안의 가족공동체적인 성격이나 이웃간의 교류관계가 열어져 가면서 변화된 생활공간만큼이나 사람들의 의식(衣食)변화와 가치관도 변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학 연구분야 중에서 주거에 초점을 둔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여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일종의 연구자의 책무

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주거는 삶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연구자가 다루는 주제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제주학연구사적 측면에서 사회변화에 따라 제주의 건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진단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의 주거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병행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새로운 제주의 주거문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방법연구

제주건축의 한 분류인 주거부분의 연구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문헌을 정리, 비교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기존문헌은 크게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그리고 단행본으로 구분하여 자료조사하였다. 특히 학술지의 경우 등재지 및 비등재지의 구분없이 통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3. 제주건축의 시대별 변화

1945년 일제강점기 이후 사회변화 속에 제주건축이 변화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전통주거건축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격적인 변화는 1960년대 관광지로서의 개발정책이 추진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변화의 과정 속에 제주건축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제주의 주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인 제주건축이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주거연구의 흐름을 살펴본다.

1) 197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태동기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당시의 분위기와는 달리 지역성에 대한 건축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주성, 지역성, 향토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관광지 개발 붐은 제주지역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개발 그 자체가 도민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타 지역민의 자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계층간의 괴리감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안고 있었다.

2) 198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모색기

1980년대에는 비교적 대형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었고, 70년대의 무비판적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하여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역성 · 향토성에 대한 자각은 1982년 2월에 정규대학 출신의 건축사들이 한국건축사협회 제주지회 결성으로 이어졌고,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지역적 건축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민관(民官)의 지역적 건축운동은 전통적인 제주의 건축 재료인 현무암, 송이의 사용을 통한 지역성 표출을 위한 실험적 모색이 두드러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3) 199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전개기

제주의 지역적 전통요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나름대로 건축 언어성을 구사하고자 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으며, 건축평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공간구성기법을 도입한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전형적인 제주건축의 형태적 언어성 표현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의 전반적인 작품의 성향에 있어서 지역적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다양한 건축언어요소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송이, 벽돌 등 다양한 마감 재료에 있어서도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제주건축의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2000년대 :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정체기(停滯期)

2000년대에 들어 제주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크게 변하게 한 큰 계기는 집합주택단지의 조성 과 그린벨트지역의 해체 그리고, 규제완화에 따른 고층사무소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특히 도심의 대규모 집합주거단지 조성, 주거 및 오피스건축물의 초고층화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제주의 도시경관의 개성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시팽창에 따른 건축물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커졌고, 새로운 도시기반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건축이 가진 문화적 성격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도시적 측면에서의 건축적 탐색」 혹은 「도시적 맥락에서의 건축탐색」, 이른바 도시건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던 지역성, 향토성에 대한 논의의 열기와 건축작업을 통한 실험적이고 참신한 지역건축의 새로운 모색은 그다지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주건축의 지역성 · 향토성의 정체 과정 속에 제주사회를 더욱 변화시킬 요인들

이 잠재해 있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이 그것이다. 지역 행정의 자치권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울러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사회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말부터 시작된 관광지화에 이어 제주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도시건축에 있어서도 변화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제주도시 주거연구의 흐름

연구논문의 내용은 크게 전통주거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특징을 정리해 본다.

(1)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학위논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주거건축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크게 1) 전통주거에서의 공간 변천의 특징, 2) 전통주거의 부재 특징, 3) 전통주거의 현대적 적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주거에 대한 연구

한편 근대건축에 있어서는 1870년대~1940년대 주거건축의 변화, 그리고 1960년대~1980년대의 건축적 특징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방전후 혼란기의 제주사회에서 근대건축의 특징과 주거건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통해 현대건축으로의 연결과정을 찾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의 시기는 제주사회에 관광지로서의 개발정책이 진행되면서 도시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준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양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3) 현대주거에 대한 연구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도시화 되어가는 제주도시의 변화 속에 연구주제도 주택 형태와 소유관계에 초점을 둔 주거사정에 대한 연구, 주거지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990년대부터 제주시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주거사정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의 주거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개별 주택에 대한 특징분석의 틀을 벗어나 주거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4·3사건, 개발과 이주에 따른 주거지의 변화가 제주사회와 어

떠한 연관성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회적 변동과 관련성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
 며 도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4) 논저의 유형별로 본 제주주거의 연구 특징과 이슈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으로 구분 정리될 수 있는데 특히 단행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주제를 다룬 다양한 도서가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와 달리 단행
 본의 성격상 보다 폭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전통주거에서부터 현
 대주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제주건축의 변화 속에 주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급속하게 도시화되어
 가는 제주도의 현실을 반영하듯 건축적 접근보다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 그리고 주
 거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하고 제시하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아울러 개발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의 연구 역시 도시기
 반의 주거문제를 다루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와 단행본에서 다루었던 논점의 핵심은 도시건축이었으며 도시주거에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한 한계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5. 맺으며 : 제주도시 주거연구의 향후 연구

제주주거사에 대한 흐름과 경향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주학
 연구자의 층이 두텁지 않은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주주거건축에 대한 연구
 의 숫적 측면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대에 들어 비판적 시각으로 제주주거를 다루려는 다양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은 제주주거 연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제주의 건축문화는 크게 변하려 하고 있고, 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는 모든 분
 야에 있어서 독창성과 개성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가장 지방적인 건축이야말로 가장 독
 창적이고, 개성적인 문화이고, 세계적인 문화인 것이다.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인정받기 위
 해서라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주지역의 고유문화 형성에 시각을 맞춘 건축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제 제주의 건축가에게 새로운 고민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주
 지역의 고유문화 형성에 시각을 맞춘 주거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 주거건축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단순히 외형적, 표피적, 그리고 시각적 관점
 에서 제주건축의 본질을 모색하려는 과거의 건축사고(思考)의 틀을 벗어나 건축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인 공간(空間)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논저

■ 학위논문

1. 양택훈(1989), 濟州道 住居建築의 變遷過程에 關한 調查研究,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석사논문, 1989
2. 신석하, 濟州島 民家の 構造部材 特性和 比例에 關한 研究, 明知大學校 석사논문, 1988
3. 양택훈, 濟州民家の 住居空間 變化에 關한 建築設計的 研究 : 增·改築을 通해 본 住居空間 및 住生活의 變化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大學院박사논문, 1992
4. 김유봉, 都市單獨 住宅型에 關한 平面構成上의 變化過程에 對한 比較研究 : 濟州道の 單獨住宅 設計事例를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건축공학전공 1993
5. 양건, 濟州地域 現代 單獨 住宅의 特性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석사논문, 1991
6. 김석윤, 19世紀 濟州道 民家の 變容과 建築的 特性에 關한 研究, 明知大學校 大學院 박사논문, 1997
7. 김정훈, 建築史的 측면에서 본 濟州建築의 變化過程에 關한 研究 : 1876년 이후의 近代建築과 現代建築의 전개過程을 中心으로,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9
8.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논문, 2001
9. 김창현, 도시단독주택의 주거평면형태와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1960~80년대 서울, 대구, 제주지역의 도시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10. 고성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따른 도시경관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 제주시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지구 및 해안도로 인접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논문, 2009

■ 학술지

1. 신석하, 濟州島 草家の 比例 構成에 關한 研究, 濟州島研究, 제주학회, 1988
2. 김태일, 김호선, 제주사회의 변동에 따른 주택특징에 관한 연구 -1945년부터 1960년대 주택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주학회, 2001
3. 정별아, 김태일, 제주지역의 주거사정 변화와 주택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1980년~1995년 인구, 주택 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濟州島研究, 제주학회, 2002
4. 안선진, 김태일, 제주지역(濟州地域)의 주생활(住生活) 현황(現況) 및 특성(特性) 분석(分析)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家口消費實態調査) 원자료(原資料) 분석(分析)을 中心(中心)으로-, 濟州島研究, 제주학회, 2003
5. 김봉애·이정림, 1955년 이후 50년간의 제주시 주거지와 주택 변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5

6. 김태일, 1945년~1955년의 제주지역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및 주거건축물의 특징 연구, 濟州島研究, 제주학회, 2010
7. 엄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濟州島研究, 제주학회, 2011

■ 단행본

1. 濟州道建築士會 [편], 濟州建築. 제2집,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
2. 99건축문화의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편], 濟州의 建築, 1999
3. 김태일, 제주건축의 맥,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4. 김태일 외,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5. 김태일, 12인 12색 제주도시건축 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6. 김태일,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7. 김태일, 제주건축,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8. 김형준, 제주건축, 경계에서 사유하기, 경문사, 2011